

日에「釜関광역경제권」제의검토

상공부 「訪日」제기 共同開發 타진

해저터널·海上관광도시 건설 韓日기업간 水平分業도 구상

정부는 盧泰愚대통령의 일
본방문을 계기로 한반도통일
권과 일본남부지역을 공동개
발하는 일명「釜関광역경제권
공동개발 계획」을 일본정부에
제의할것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
에는 釜関간의 해저터널건설
계획과 한려수도·나가사키·
제주도·오카와도를 연결하
는 해상관광도시건설등의 대
형프로젝트가 포함돼있으며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아
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번영
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韓日
두나라간의 교류확대와 분업
의 가능성이 가장 큰 釜関지
역을 광역경제권으로 공동개

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며, 선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컬러TV생산 등에서 일본기
업과 국내업체들이 水平分業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특히 두나라 모두 수도권
에 정보와 기술 자급 인력을
결집하고 있는 불균형발
전을 경험하고 있어 양국정부
가 긴밀한 협력하에 새로운
개발축을 구축할수 있다고 보
고, 한류의 부산 대구 경부
북 전남 북 제주지역과 일본
의九州山口 沖縄등을 연결

하는 대칭개발권을 구상중
이다.
지역간의 분업계획을 보면
한반도의 동서남해안에 고급
부품기지 공업벨트를 설치하
고 일본九州지역은 테크노폴
리스가 건설되고있을것으로
정보発信기지로 만들며, 제주
도에는 동심관공시장을 보완
하여 국제관광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동남부지역(호남·호
남·호남)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영구과 포항

스칸의 해저터널과 같은 釜関
터널을 민간자본으로 공동개
설두나라경제교류를 확대하
고九州지역의 테크노폴리스
와 한국의 동서남해안에 위치하
게될 테크노폴리스간에 정기
적인기술인력교류와 기술세미
나개회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일본남부지역 건
설시장에 한국업체들이 진출
하고 麗川공단과 일본 大分
徳山단지의 선유화분업
東海와 宮崎간의 시멘트분업
龜尾와 후쿠오카간의 컬러T
V분업등을 추진할수상이다.

日本に「釜関広域経済圏」提案検討

商工省「訪日」を契機に共同開発を打診

海底トンネル、海上観光都市を建設

韓日企業間で水平分業も構想

商工省は盧泰愚大統領の日本訪問を契機に、韓半島の東南圏と日本の南部地域を共同開発する、釜関広域経済圏の共同開発を日本政府に提案することを検討中である。そこには釜関間の海底トンネル建設計画と、閑麗水道～長崎～済州島～沖縄などを結ぶ海上観光都市建設などの大型プロジェクトが含まれており、石油化学と鉄鋼、セメント、カラーテレビの生産などで日本企業と国内企業が水平分業体制を構築するとの内容を含んでいる。

7日、商工省によれば、アジア太平洋地域の共同繁栄を追求する次元で、韓日2国間の交流拡大と分業の可能性が最も大きい釜関地域を広域経済圏とし、共同開発する必要性があると判断、経済省庁内の実務者レベルでこの問題を慎重に論議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特に両国とも首都圏に情報と技術、資金、人材など経済力が集中する不均衡な発展を経験しており、両国政府が緊密な協力のもとに新たな開発軸を構築できるとみて、韓国の釜山、大邱、慶尚南道、慶尚北道、全羅南道、全羅北道、済州地域と、日本の九州、山口、沖縄などを結ぶ経済圏を構想中である。

地域間の分業計画を見ると、韓半島の東西南海岸に高級部品基地、工業地帯を設置し、日本の九州地域はテクノポリスが建設されていることを鑑み、情報発信基地として育成、済州島には東京金融市場を補完し、国際金融市場の役割を果たす域外金融市場（オフショア市場）を建設するというものだ。

また長期的には、英国とフランス間の海底トンネルのような釜関トンネルを民間資本で共同建設、両国の経済交流を拡大し、九州地域のテクノポリスと韓国の東西南圏に位置することとなるテクノポリス間に、長期的な技術者の交流と技術セミナー開催を推進するとのことである。

それと共に、日本の南部地域の建設市場に韓国企業が進出し、麗川工業団地と日本の大分～徳山団地間の石油化学分業、東海（日本海）と宮崎間のセメント分業、亀尾と福岡間のカラーテレビ分業などを推進する構想である。